제4강 검성의 형식: 공간론과 시간론

◆공간론 (감성의 형식1)
(1교시)
※학습목표: 감성의 형식 중 하나인 공간론에 대해서 살펴본다.

▲공간의 의미 1
「공간은 외적 경험에서 추상된 경험적 〔후천적〕 개념이 아니다. (중략) 공간의 표상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에게 공간은 어떤 경험에서 추상된 것도, 경험의 세계를 떠난 이데아의 것도 아니다.
-애초에 공간에 대한 표상이 전제되어야 사물들이 지각된다.

*참고사항
경험론자와 플라톤의 차이
: 수학적 원과 경험적 원은 다르다. 경험론에서는 수학적 원이 경험적 원에서 출발하여 추상된 것이라 본다. 반면 플라톤은 애초에 우리 영혼에 수학적 원이 있어서 경험적 원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본다. 칸트의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한다.

▲공간의 의미 2
「공간은 모든 외적 직관작용의 근저에 있는 필연적인 선천적 표상이다. (중략) 그것은 외적 현상의 근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a priori한 표상이다.」
-외적 현상이 있어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간이 외적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참고사항
선험과 선천의 차이
: '선험적인a priori'은 '선천적인'과 다르다. 두 표현이 가지고 있는 외연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선험적인 것은 의식이 경험에 의존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선천적인 것은 생물학적 문제다.

▲공간의 의미 3
「공간은 추리된 개념이 아니다.」
-공간은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유(추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즉 공간은 순수 객관적 실체(혹은 경험)도 아니지만, 순수 사유도 아니다.
-공간은 순수직관의 형식이다.
-더불어 공간은 하나다. 무수한 공간이 있지만, 그것들은 단 하나인 공간의 부분들이다.

▲경험론의 입장
-공간에 있어서 그 위에 사물들이 있다는 생각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인공적인 상황일 뿐이다. 텅빈 공간은 없다. 사물들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빈 공간을 설정하는 것은, 사물들이 원래 있음에도 공간개념이 작동했던 것이다.

www.artnstudy.com

-텅 빈 공간에 사물이 채워진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다. 제작적 세계관으로 제작적 모델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간이 아닌 장소가 더 근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칸트와 고전물리학
-실제 삶은 기하학적이지 않다.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있다. 공간보다 장소가 더 경험적으로 일차적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관계를 맺고 추상화 되면서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칸트가 경험론자의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은 고전물리학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전물리학적 사고는 뉴턴의 사고를 말한다. 그런데 뉴턴은 그 물리학적 내용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철학적 배경이 여전히 중세적이다.
-칸트는 공간이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인식주관의 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칸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고전물리학적 세계관이다. 즉 기하학적인 생각이다.

*참고사항
-경험론의 시작은 William of Ockham에서 볼 수 있다. 그는 모든 지식이 경험으로 나오며, 보편자는 개별자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경험 이외에서 나온 것은 단지 이름만 있는 것으로 본다.

▲공간의 의미 4
「**공간은 주어진 무한한 크기라고 표상된다.**」
-현실적(즉자적) 무한actual infinite이다.
-칸트는 현실적 무한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virtual infinity잠재적 무한뿐이다. 이는 중세적 사고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신이 반드시 현실적 무한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이 잠재적 무한이라면, 신은 단지 상상적이거나 심상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나 경험론의 입장에서 현실적 무한은 상상일 뿐이다.

www.artnstudy.com

◆시간론
(2교시)
※학습목표: 감성의 형식 중 하나인 시간론에 대해서 살펴본다.

▲외감의 형식과 내감의 형식
-칸트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은 감성의 형식이다. 그중 공간은 외감의 형식, 시간은 내감의 형식이다. 칸트는 이 두 감성의 형식을 대칭적으로 보고 있다.
-베르그송은 공간과 시간을 대칭적으로 다루는 것을 비판한다. 또한 서양전통철학에서 시간을 공간적 모델에 맞추어 파악했음도 비판한다.

▲시간의 의미 1
「시간은 어느 경험에서 유도된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인간 인식에 시간의 좌표가 있어야 어제와 오늘이 구별 가능하다. 즉 시간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있어야 경험이 생긴다.

▲시간의 의미 2
「시간은 모든 직관의 기초에 있는 필연적 표상이다. (중략) 현상들은 예외 없이 제거될 수 있으나(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조건으로서의) 시간 자신은 없앨 수가 없다.」

▲시간의 의미 3
「시간은 일차원만을 갖는다.」
-시간은 선형적liner이다. 선으로 파악된다. 시간의 형식은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험이 그 위에서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선험적 조건이다.
-그러나 베르그송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형적 시간은 상당히 공간의 모델로 파악한 것이다.

▲시간의 의미 4
「시간은 추리된 개념이 아니다. 흔히 말하듯이 일반적인 개념도 아니다. 그것은 감성적 직관의 「순수 형식」이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경험으로부터 추상된 개념이 아니고, 동시에 개념으로부터 추론된 것도 아니다.

▲시간의 의미 5
「모든 한정된 시간량은 그 기초에 있는 유일한 시간을 제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시간의 무한성」의 의미이다. (중략) 즉 우리는 시간의 계속을 무한히 진행하는 선이라 표상한다. 이 선에 있어서 다양한 것 〔심리 현상들〕은 일차원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오는 방향〕만을 갖는 계열을 형성한다.」
-모든 한정된 시간량은 무한한 시간을 전제해야만 하며, 그 무한한의 조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을 공간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의 조각이 제체공간의 부분인 것처럼, 시간의 조각을 전체 무한한 시간의 조각으로 보는 것이다. 즉 시간을 기하학적 표상으로 환원시켜

www.artnstudy.com

보는 것이다.

▲공간적 시간 해석에 대한 반기
-서양철학 사고방식의 패턴은 상당히 공간적이다. 그런데 나중에 헤겔, 니체, 베르그송, 하이데거, 화이트헤드, 들뢰즈 등은 공간이 아닌 시간의 차원에서 얘기한다. 특히 서양철학사는 19세기를 분기점으로, 기간의 사고로 전개되고 있다.
-헤겔: 칸트의 시간은 역사성이 완전히 배재되었다. 역사적 계기moment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변증법적인 갈등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시간을 텅빈 기하학적 공간으로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판은 니체에 와서 더욱 문제화 되고, 베르그송에 와서 본격적으로 심화된다.)

▲시간과 공간의 위상
-시간과 공간은「경험적 실재성」과 「선험적 관념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경험적인 실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성의 판단이나 대응이 아니라 직관의 문제다. 그러나 동시에 직관의 내용이 아니라 직관의 형식이기 때문에 선험적 관념성을 지닌다.

*참고사항

『말과 사물』미셸푸코, 이광래, 민음사, 1997

www.artnstudy.com